코로나19 극복 공유행복 공모전 - 에세이부분

언제나 너와 함께해

김행복

사계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봄인 너.

봄에는 맛있는 딸기가 많이 나온다며 좋아하고 만개한 벚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지.

이번 봄에는 함께 벚꽃을 보러 가자고 내게 얘기했을 때 '무슨 벚꽃이냐며 사람이 많아 가기 귀찮다' 고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 봄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

비가 내리면서 느껴지는 촉촉이 젖은 땅의 냄새
지금 막 피어난 꽃들 사이로 느껴지는 향긋한 냄새

이렇게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면서 느껴지는 계절의 냄새를 맡으니 봄이 이제 성큼 다가왔다는 사실이 느껴지더구나.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를 함께 느끼지 못한 채 너는 코로나19로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며 지내고 있지. 지쳐서 들어오는 발걸음이 힘들어 보여 말을 걸고 싶지만, 함께 싸우고 돌아온 너에게 쉬이 말을 건네기가 어려웠다.

처음에는 '왜?' 라는 의문이 나의 머릿속에 계속 머물렀어. 왜 이러한 바이러스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지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했고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진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지.

그리고 그 걱정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누구보다 먼저 병원으로 달려가 그들을 돌보겠다고 갔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준 것처럼, 너도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렴. 어쩌면 하루하루가 더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꼭 기억해줘. 언제나 엄마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처럼, 함께 애쓰고 있는 많은 의료진분들이 계시기에 걱정스러운 밤도 안심하며 지나갈 수 있단다. 깜깜한 밤하늘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그곳에서도 나는 우리 딸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고 있으리라 믿어.

엄마도 함께 하루빨리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을게.
사랑해.

- 언제나 너와 함께하는 엄마가 -

코로나19 극복 공유행복 공모전 - 에세이부분

낭만격리 김사부

김긍정

“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말라. 그 질문을 포기한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 ”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속 대사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대구 경북지역의 의료진 부족으로 내가 속해있는 간호협회에서도 의료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글들과 문의글이 넘쳐났다.
가슴이 몰캉몰캉 뛴다.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던 20대의 내가 마음속에서 신호를 보낸다. ‘마음가는 곳으로 가!’

현실적으로는 직장이 있고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인 내가 그 곳에 가는 것은 내 소중한 일상에 무책임한 행동일 것이다.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을 하자! 사회적거리 두기, 긍정적인 마음으로 희망차게 하루하루 보내기,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기!

봉사를 위해 멀리 가지 않아도 일상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처럼 대외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가까이에서는 우리 지역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담당공무원 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바람이 차가운 지난 주 선별진료소 외부에서 검사 온 시민들에게 웃으며 진행과정을 설명해주시는 모습은 온라인상에서 무섭도록 차가운 댓글 공격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한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에도 충분해 보였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개인정보들이 노출되고 지역주민이라면 어느 동에 사는 누구인지도 짐작이 될 때도 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심리적 고통이 더 클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따뜻한 말 한 마디를 보낸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심리적 치료가 어디있을까? 혹자는 그 일이 직업이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말하지만, 현장에서 담담히 본인 일을 행하는 것이 일상을 유지하고 안전한 오늘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기력하고 불안한 점도 있지만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다. 지역사회 전염을 막기 위해 최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지역 보건소 공무원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나는 오늘도 마스크를 챙기고 손을 씻고 웃으며 낭만격리 생활을 하는 김사부가 될 것이다.

로나의 코로나19 극복방법!



코로나19 타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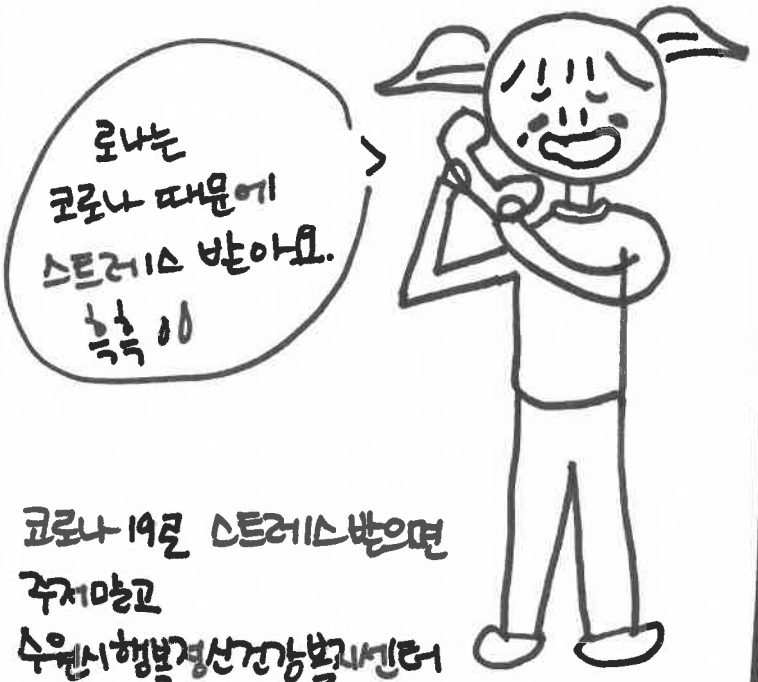
집에서 주기적인 스트레칭 해주기





방심은 NO!

평소처럼 규칙적인 생활하기



코로나19로 스트레스받으면
주저말고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031-253-5737(내선1)로
전화!



긍정이 긍정을 낳고!

극복&응원메세지 공유 공모전 참여!

(feat.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코로나19세
공물을 내!!
수현씨
수현씨 집
! 수현씨가 힘들어해
이젠 더이상 낼게 없어...
방탄이 왔어?!
수현씨 집
몰아내자!!
코로나 19세를 물리쳐!!
넌 이제 끝이야!!


크하 1세
수원이 1세
한국이 1세
오늘 내 가방은 김수원이 들어!!
알았어....
수원아 우리 힘을 합쳐 코딩을 몰아내자!!
그래!
미안해.... 내가 어떻게


다들 빨려 들어가고 있어!!
힘을 모으는 거야!!
받아라!!!
현동의 빛!!
도망가자!!